

〈정태춘 박은옥〉의 간략한 프로필

〈정태춘 박은옥〉

시대와 인간을 노래한 한국의 대표적 포크 뮤지션들이다.

1978, 1979년에 각각 〈시인의 마을〉과 〈회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80년 결혼 후 음악적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로 노래 활동을 함께 해왔다.

시적 서정성 짙은 창작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순과 그 저항을 노래와 직접 참여로 표현하고 실천해 온 문화운동가이다.

1984년 4집 〈떠나가는 배〉 이후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2012년 11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까지 8장의 앨범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정박 부부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 콘서트,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태춘 박은옥 40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정태춘 박은옥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joung-park.com>

정태춘 박은옥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I4-yYxFtAbtI6eovLknjzg/>

〈정태춘〉

1954년 평택 출생. 평택고등학교 졸업.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 온 싱어송라이터이다.

1978년 첫 앨범 〈시인의 마을〉을 발표하면서 데뷔, 1979년 MBC 신인가수상과 TBC 가요대상 작사상을 수상하였다.

서정성과 서사성을 아우르는 문학성 짙은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음유시인으로 불린다.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문화운동가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1990년부터 6년 간 〈가요 검열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여 1996년 헌법재판소의 ‘가요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일이다.

1996년에 〈민족예술상〉(박은옥과 공동 수상), 2007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경부터 노래 창작을 접고 〈붓글〉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 40주년 기념 앨범이자 12번째 앨범 〈2019' 사람들〉을 발표하였다.

40 여 년 간 100여 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로서 주요 곡으로는 〈촛불〉,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92년 장마, 종로에서〉, 〈5.18〉 등이 있다.

〈박은옥〉

1957년 서울 출생. 마산여고 졸업

섬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특별한 호소력을 지닌 포크 싱어송라이터이다.

1978년 정태춘의 작품들로 데뷔 앨범 〈회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결혼 후 정태춘과 함께 솔로곡과 듀엣곡이 담긴 앨범을 내며 활동하였으며, 90년대 가요검열제 철폐를 이끌어낸 공로로 정태춘과 공동으로 〈민족예술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 10년 만에 발매한 11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를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맑은 서정성을 되살리며 울림 깊은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다.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이에게〉 〈봉숭아〉 노랫말을 썼으며, 〈하늘 위에 눈으로〉 등의 자작곡이 있다.

정태춘 박은옥 연보

1954년

〈정태춘〉은 경기도 평택 도두리에서 5남 3녀의 일곱째로 태어났다.

1957년

〈박은옥〉은 서울에서 출생, 7세 무렵부터 마산에서 자랐다.

1967년

〈정태춘〉은 평택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악반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을 시작했다.

〈박은옥〉은 사촌 오빠들이 기타 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기타를 익혔다. 중학교 때 잠시 바이올린을 배웠다.

1972년

〈정태춘〉은 음악 대학 낙방 후 서울에서 재수를 했다. 헤세와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다. 입시를 몇 달 앞두고 서울에서 대학 진학 준비를 중단하고 밀양으로 떠났다.

1974년

〈박은옥〉은 경남 마산 여고 시절,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시작, 선배와 듀엣 활동을 했다. 당시 전국 고교를 순회하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학교 대표로 노래했다.

1975년

〈정태춘〉은 군(전투경찰) 입대. 인천과 고양경찰서 기동타격대에서 근무했다. 그의 대표적 노래 ‘서해에서’ ‘시인의 마을’ ‘사랑하고 싶소’ 등을 군대에서 만들었다.

1978년

군 제대 후, 경음악평론가 최경식의 소개로 서라벌 레코드사와 인연을 맺었다. 11월 〈시인의 마을〉을 타이틀곡으로 첫 앨범을 발표했다.

〈박은옥〉은 부산의 음악다방에서 디스크 자키 (DJ)로 활동하다 가수 최백호의 권유로 상경, 서라벌 레코드사에서 정태춘을 만났다.

1979년

〈박은옥〉은 〈정태춘〉 작사 작곡의 작품들로 첫 앨범 〈회상〉을 녹음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정태춘〉은 ‘촛불’로 MBC 신인 가수상과 TBC 방송가요대상 작사상을 수상했다.

1980년

2집 앨범 〈사랑과 인생과 영원의 시〉를 발표했다. 5월 정태춘 박은옥 결혼. 박은옥은 2집 〈양단 몇 마름〉을 발표했다.

1981년

딸 〈정재난술〉이 태어났다. (현재, 싱어송라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로 활동)

1982년

〈정태춘〉, 국악 반주의 가요 작업으로 3집 앨범 〈우네〉를 발표했다.

1983년

〈정태춘 박은옥〉, 지구레코드와 4년 전속.

1984년

4집 앨범 〈떠나가는 배 / 사랑하는 이에게〉로 재기했다. 이 앨범은 〈정태춘 박은옥〉의 첫 공동 앨범이다.

1985년

〈정태춘 박은옥의 얘기노래마당〉이 부산카톨릭회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 75회 공연, 약 3만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1986년

5집 앨범 〈북한강에서 / 봉숭아〉를 발표했다. 〈얘기노래마당〉 소극장 공연은 전국적인 흥행 속에 1987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1987년

정태춘 박은옥 기획사 〈삶의문화〉 설립 / 발표된 곡 중에서 잘 알려진 노래들을 모은 〈정태춘 박은옥 발채곡집〉을 발매했다 (발매 음반사 . 한국음반). 이 때부터 레코드사 소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앨범 제작을 시작했다.

1988년

6집 <무진 새 노래>를 발표했다. <청계피복노조> 주최의 집회에 초청 공연으로 참가했다.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새로운 노래극 <송아지 송아지 누렁 송아지> 공연을 기획했다. 실내 공연은 1989년 4월 서울 공연까지 이어졌다.

1989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으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자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함께 전교조 지지를 위한 대규모 야외 공연 <송아지 송아지 누렁 송아지>를 기획 진행했다. 9~10월 두 달 동안 총 관객 20만 명이 참가하였다. 이때부터 사회참여적 음악활동을 본격화했다.

<정태춘>의 노래 시 전집 『누렁 송아지』(이영미 엮음, 한울)가 출간되었다.

1990년

정부의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비합법 앨범 7집 <아, 대한민국...>을 발표하며 <대중음악 검열 철폐 운동>에 돌입했다. 전국의 모든 공연장에서 앨범 사인 판매를 진행했다.

1991년

‘음반법에 관련된 정태춘 기자회견 및 비합법 음반 발표회’를 홍사단 강당에서 개최했다. 정부의 가요 사전 심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정부, 국회, 사법 기관에 검열 철폐 문제를 제기했다.

1993년

‘가요의 사전 심의 거부’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비합법 앨범, 8집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음반법 위반으로 정태춘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각 시도 공보실에 <92년 장마, 종로에서> 음반 수거 지시를 내렸다.

1994년

검찰의 기소로 벌어진 공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제청을 신청했다.

「‘가요의 검열제 폐지’에 관한 입장 및 그 대안」 자료집을 제작 배포했다. 정부 및 국회, 언론과 접촉하면서 입장을 개진하고 다방면의 폐지 활동을 전개했다.

1995년

<가요 사전심의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996년 6월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고, 음반 검열제도 철폐 기념 합동 콘서트 <자유>가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헌법재판소 위헌제청심판에서 음반의 사전심의 강제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부 공동으로 <민족예술상>(민족예술총연합)을 수상하였다.

1997년

<정태춘 박은옥 포크 콘서트 ‘사랑하는 이에게’> 공연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진행했다.

1998년

데뷔 20주년 기념 음반 9집 <정동진/건너간다>를 발표하고, <정태춘 박은옥 콘서트 ‘건너간다’> 순회 공연을 진행했다.

2002년

앨범 발매사를 <유니버설>로 옮겨 그동안의 모든 앨범 발매를 중단하고 대표곡 33곡을 수록한 베스트 앨범 <정태춘 박은옥 20년 골든 앨범(1978-1998)>을 제작했다.

11월 정태춘 박은옥 10집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를 발표하고, 발매 기념 콘서트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2003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 <들사람들>을 결성했다. 2006년까지 이어진 평화 예술 활동은 수 백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저항하는 대추리 주민들과 연대했다.

2004년

일본 홋카이도 포럼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 콘서트’에 참여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 <달아 높이곰 - 징용자 아리랑>을 만들었다. (이후 몇 년 간, 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첫 시집 『노독일처』(실천문학사)를 발간했다.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옆 인도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정태춘 박은옥 거리 콘서트’ <평화, 그 먼 길 간다> 거리 공연을 진행했다.

2006년

현장예술인들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문예공동행동을 기획했다. 수천 명의 경찰 병력과 용역 철거반,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앞세운 정부의 행정 대집행을 저지하다가 주민들, 활동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두리, 대추리 고향 주민들은 결국 쫓겨나고 마을은 철거되면서 4년여의 투쟁이 끝을 맺었다.

2007년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안장식 문화제 <잘가오, 그대>를 기획, 연출했다.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미술인들의 마련한 헌정 전시 <다시, 건너간다>가 열렸다.

2012년

새 앨범 11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를 발표했다. 정태춘 사진전 <비상구> 전을 열었다.

이후, 노래 창작을 접고 <붓글> 작업을 하고 있다.

2019년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 12집 <사람들 2019>를 발표했다.

시집 『노독일처』 (복간), 『슬픈 런치』, 노래 에세이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천년의 시작)를 출간했다.

4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날자, 오 리배>가 전국 22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기념 전시 <다시, 건너간다>, 헌정 출판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발간, 학술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태춘 박은옥 40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